

殯殿都監儀軌에 나타난 服飾研究(I)

— 懿仁王后 및 仁穆王后를 중심으로 —

檀國大 民俗博物館
研究員 朴 聖 實

目 次	
I. 序 論	3) 下衣類
II. 殯殿都監儀軌의 種類 및 內容	4) 其他類
1) 種 類	V. 仁穆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의 服飾
2) 內 容	1) 袍 類
III. 王室의 斂襲衣	2) 上衣類
1) 國朝五禮儀 및 國朝喪禮補編의 斂襲衣	3) 下衣類
2) 殯殿都監儀軌의 斂襲衣	4) 其他類
IV. 懿仁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의 服飾	VI. 兩儀軌와 昭顯世子·莊烈王后 嘉禮都監儀軌의 服飾比較
1) 袍 類	VII. 結 論
2) 上衣類	參考文獻

I. 序 論

朝鮮朝의 儀軌 가운데 대표적인 嘉禮都監儀軌와 國葬都監儀軌類는 服飾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어 嘉禮都監儀軌 服飾을 전문적으로 다룬 博士學位論文¹⁾을 비롯한 다수의 論文에서 참고자료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種類의 儀軌類들이 서울大學校 奎章閣, 精神文化研究院, 파리國立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데 宗廟·社稷, 嘉禮·賀禮, 國葬·喪禮, 祔廟, 殯殿·魂殿, 葬胎, 陵·園·墓, 廟號·諡號, 尊崇·追尊, 寶印, 御眞·影幀, 冊禮, 進宴, 錄勳, 撰修·改修, 實錄, 親耕·親蠶, 祭器·樂器·營建·整理, 景慕宮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²⁾ 이러한 王室 및 國家의 大事가 있을 때에는 그 行事를 主管하는 臨時官廳인 都監을 設置하여 行事를 치루게

되는데 各 都監에서는 同行事를 치룬 過程一切을 日字順으로 記錄한 膳錄을 만들어 後日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行事가 끝나면 都監을 罷하고 膳錄에 其他 資料를 補充하여 정리한 것이 儀軌로써 各行事名에 따라 고유 명칭이 개별적으로 붙여졌다.

儀軌는 御覽用으로 1部와 議政府 禮曹 및 春秋館, 江華府, 太白山, 五臺山, 赤掌山 史庫에 保管하는 各 1部 등 9部가 作成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儀軌에 따라서는 2部가 作成된 경우도 있어 그 수는 일정치 않으나 御覽用 1部는 반드시 作成토록 되어 있어 2部 뿐인 경우 御覽用과 禮曹用으로 보관되었다.³⁾

同儀軌인 경우라도 御覽用은 양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내용은 同一하나 겉표지가 비단이며 內紙에 홍색으로 線이 그어져 있는 점이 다르며 奎章閣 所藏의 景慕宮儀軌 表紙가 草綠雲寶紋緞으

1) 劉頌玉, 朝鮮時代 儀軌圖의 服飾研究, 흥익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6.

2) 奎章閣圖書 韓國本綜合目錄, 史部, 서울대학교도서관편, 1983, pp. 350~428.

3) 朴炳善, 朝鮮朝의 儀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 8.

로 되어 있어 御覽用임을 알 수 있으며 儀軌를 참고할 때 때때로 誤字나 脫字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 御覽用과 비교해 볼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御覽用 表紙에 사용된 織物類는 當時 織物 研究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丙寅洋擾(高宗 3年 1866) 때에 프랑스 군대가 江華를 侵犯하여 江華府 所在의 外奎章閣에 있던 典籍을 奪取해간 340餘冊 중에 그 태반을 차지하는 儀軌, 膳錄 등이 297冊에 이르며 국내에 없는 御覽用 儀軌 등이 포함된 많은 양이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므로⁴⁾ 심히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本稿에서 論하고저 하는 殯殿·魂殿都監儀軌도 많은 儀軌類 중의 一種으로 王이나 王妃의 國血時 襲, 斂, 成殯, 成服, 魂殿, 排備 등의 일을 관장한 都監의 기록이다. 世子와 世子嬪의 경우는 殯宮·魂宮都監儀軌로 되어 있고 내용은 동일하다. 本儀

軌에는 王室의 斂襲儀 및 이에 소용된 斂襲衣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本稿에서 다루고저 하는 宣祖妃 懿仁王后 및 宣祖繼妃 仁穆王后 殯殿都監儀軌에는 특히 斂襲衣의 기록이 상세할 뿐 아니라 儀軌 가운데 初期에 속하는 것이며 각기 200件이 넘는 王妃의 衣襟가 기록되어 있어 命服에서 平常服에 이르는 王妃의 服飾類 등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된다. 이것은 또 同時代의 嘉禮都監儀軌와도 비교 연구되어야 하며 각처에서 출토된 出土服飾과도 竝行 研究되어야 할 과제로 요구되었으며 따라서 本稿에서는 紙面關係로 그 일부분의 간략한 소개로 대신하고 곧이어 발표될 學位論文에서 재론하고자 한다.

II. 殯殿都監儀軌의 種類 및 內容

1) 種類

<표 1>

歷代 妃·嬪 殯殿·殯宮都監儀軌

	妃·嬪		儀 軌 名	昇 遐 年 代	昇 遐 - 發 靱 (月·日) (月·日)
①	懿仁王后	宣祖 ①妃 朴氏	殯殿·魂殿都監儀軌	宣祖 33年 1600	6. 17~12. 22(하현궁)
②	仁穆王后	宣祖 ②妃 金氏	殯殿·魂殿都監儀軌	仁祖 10年 1632	6. 28~10. 6(하현궁)
③	仁宣后	孝宗 ①妃 張氏	殯殿·魂殿都監儀軌	顯宗 15年 1674	2. 24~6. 6
④	仁敬王后	肅宗 ①妃 金氏	殯殿都監儀軌	肅宗 6年 1680	10. 26~2. 22
⑤	明聖王后	顯宗 ①妃 金氏	殯殿都監儀軌	肅宗 9年 1683	12.5~4. 3(5日 하현궁)
⑥	仁顯王后	肅宗 ②妃 閔氏	殯殿都監儀軌	肅宗 27年 1701	8. 14~12. 8
⑦	端懿嬪	景宗 ②妃 沈氏	殯宮都監儀軌	肅宗 44年 1718	2.7~4. 16
⑧	宣懿王后	景宗 ②妃 魚氏	殯殿都監儀軌	英祖 6年 1730	6. 29~10. 19
⑨	孝純賢嬪	眞宗 ①妃 趙氏	殯宮·魂宮兩都監二房儀軌	英祖 27年 1751	11. 14~5. 2
⑩	貞聖王后	英祖 ①妃 徐氏	殯殿都監儀軌	英祖 33年 1757	2. 15~6. 3
⑪	仁元王后	肅宗 ③妃 金氏	殯殿都監儀軌	英祖 33年 1757	3. 26~7. 11
⑫	貞純王后	英祖 ②妃 金氏	殯殿·魂殿都監儀軌	純祖 5年 1805	1. 12~6. 19
⑬	獻敬惠嬪	思悼世子嬪 洪氏	殯宮都監儀軌	純祖 15年 1815	12. 15~3. 1
⑭	孝懿王后	正祖 ①妃 金氏	殯殿·魂殿都監儀軌	純祖 21年 1821	3. 9~9. 10
⑮	顯穆綏嬪	正祖 ③嬪 朴氏	殯宮·魂宮都監儀軌	純祖 22年 1822	12. 26~2. 26
⑯	孝顯王后	憲宗 ①妃 金氏	殯殿·魂殿都監儀軌	憲宗 9年 1843	8. 25~12. 1
⑰	純元王后	純祖 ①妃 金氏	殯殿·魂殿都監儀軌	哲宗 11年 1860	8. 4~12.
⑱	哲仁王后	哲宗 ①妃 金氏	殯殿·魂殿都監儀軌	高宗 15年 1878	5. 12~9. 16
⑲	神貞王后	翼宗 ①妃(趙大妃)	殯殿·魂殿都監儀軌	高宗 23年 1886	4 ~7
⑳	明成皇后	高宗 ①妃 閔氏	殯殿·魂殿都監儀軌	高宗 32年 1895	10. 15~1897. 10. 28
㉑	孝定王后	憲宗 繼妃 洪氏	殯殿·魂殿都監儀軌	光武 7年 1903	11. 15~1. 28
㉒	純明妃	純宗 ①妃 閔氏	殯殿·魂殿都監儀軌	光武 8年 1904	9. 28~11. 28

4) 朴炳善, 朝鮮朝의 儀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 8.

國喪時 임시로 설치되는 각 도감의 명칭을 보면 王과 王妃의 경우 國葬都監 殯殿·魂殿都監 山陵都監으로, 世子와 世子嬪의 경우는 禮葬都監 殯宮·魂宮都監 園所·墓所都監 등으로 구분하고 주인공에 따라 각각의 의례명칭이 붙여진다.

國葬이나 嘉禮都監儀軌 등 거의 모든 의례가 그러하듯이 殯殿·殯宮都監儀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壬亂前의 것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파리 국립도서관의 소장본도 1630~1849년 사이의 것이라고 한다.⁵⁾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殯殿·殯宮都監儀軌의 종류를 살펴보면 王과 王世子の 경우 仁祖, 孝宗, 顯宗,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純祖, 憲宗, 哲宗의 10王과 昭顯世子(仁祖 1子), 孝章世子(追尊王 眞宗·英祖 1子), 思悼世子(追尊 莊獻世子 莊祖·英祖 2子) 文孝世子(正祖 1子) 孝明世子(追尊王 翼宗·純祖 1子) 등 5王世子, 懿昭世孫(思悼世子 1子)까지 모두 16件的 의례로 仁祖 23년(1645)부터 高宗 즉위년(1863)에 이르는 약 220년간의 기록이다.⁶⁾ 王妃의 경우는 王의 儀軌보다 훨씬 많은 수량이 소장되고 있는데 이는 王妃가 昇遐할 경우 繼妃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세한 내역을 도표로 작성하면 <표1>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宣祖는 2妃, 肅宗 3妃, 景宗 1嬪 1妃, 英祖 2妃, 正祖 1妃 1嬪, 憲宗 2妃로 나타나고 있는데 端懿嬪은 景宗이 世子로 있을 당시 薨逝하였고 顯穆綏嬪은 純祖의 生母로서 正祖의 正妃인 孝懿王后가 無嗣로 昇遐한 다음해 薨하여 정식으로 繼妃로 冊封되기 전 嬪의 위치에서 유일하게 儀軌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追尊王 翼宗妃 神貞王后도 王妃로 예우하여 殯殿·魂殿都監儀軌로 남아 있다. 그러나 追尊王 眞宗妃는 孝純賢嬪 殯宮·魂宮兩都監儀軌로 되어 있으며 思悼世子嬪인 獻敬惠嬪 殯宮都監儀軌가 있다. 純宗이 皇太子로 있었을 당시 薨한 皇太子妃 閔氏의 경우도 殯殿·魂殿都監儀軌로 命名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殯殿都監儀軌가 18件, 殯宮都監儀軌가 4件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本儀軌를 조사하던 중 儀軌表紙가 誤記로 되었을 뿐 아니라 奎章閣 韓國本圖書解題(史部)⁸⁾ 기록도 잘못되어 있어 분류된 상태가 誤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奎章閣 圖書번호 13516은 宣祖妃 仁穆王后國葬都監儀軌로 되어 있고 해제내용을 國葬儀軌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신청하여 조사해 보면 儀軌表紙가 中宗妃 端敬王后 復位祔廟都監儀軌 崇禎五年 壬申六月○日로 表記되어 있다. 端敬王后(成宗18년 1487~明宗12년 1557)는 中宗의 妃로서 慎守勤의 딸인 王妃 慎氏로 1506년 中宗反政으로 王后가 되었으나 아버지가 살해된지 7일만에 廢位된 悲運의 주인공으로 영조 15년(1739년)에 追復位되었다.⁹⁾

崇禎五年은 仁祖 10年(1632년)으로 儀軌名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儀軌內容은 他殯殿都監儀軌와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를 재검토하여 본즉 “崇禎五年 壬申 六月二十八日 未時 大行大王妃 昇遐 于仁慶宮欽明殿” 또 改銘旌 部分에 “昭聖 貞懿 明烈 光淑 ○○ 仁穆王后 梓宮 十六字書”의 記錄을 찾아 本儀軌는 仁穆大妃의 殯殿·魂殿都監儀軌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本稿에서 仁穆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名은 本人이 命名한 것임을 밝혀둔다. 端敬王后 復位祔廟都監儀軌는 奎章閣 圖書번호 14881로 확인할 수 있었다.

本儀軌는 懿仁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와 함께 前期儀軌이면서도 斂襲衣 記錄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일차적으로 兩儀軌를 考察하게 되었다.

國末 高宗皇帝國喪(1919년)과 純宗皇帝國喪(1926년)은 庚戌失國後 日政下에서 惶忙하게 치루어져 傳統樣式을 갖추기가 불가하였으므로 儀軌가 作成되지 못하였고 그후 純宗妃 純明孝皇后 尹妃(1966년)의 因山, 懿愍皇太子(英親王)의 葬禮(1970. 5)에도 儀軌는 마련되지 못하였다. 다행히도 全州李氏大同宗約院에서는 1990년 7월 懿愍皇太子

5) 朴炳善, 朝鮮朝의 儀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 9.

6) 昭顯世子 殯宮都監儀軌(1645)~哲宗大王 殯殿·魂殿都監儀軌(1863),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7) 懿仁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1600)~純明妃 殯殿·魂殿都監儀軌(1904),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8)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IV, 서울대학교도서관, 1982, p. 517.

9)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80, p. 224.

妃(英親王妃 李方子) 葬儀錄을 發行하여 朝鮮朝 마지막 王族인 皇太子妃의 葬儀錄을 정리하였다¹⁰⁾ 한다.

2) 內容

나라에 國喪이 나면 해당 관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行事를 맡아 분담 처리하게 된다. 즉 王의 患後가 위급하면 掖庭署는 思政殿에 幄帳과 黼宸(붉은 비단에 도끼모양을 그려 꾸민 병풍)를 설치한다. 內侍는 王을 부축하여 輿에 태워 幄帳 안으로 나아가 几에 기대게 하고 王世子는 곁에서 모시는데 王이 宰執大臣 및 近侍를 불러 顧命을 發하면 王世子와 大臣 등이 함께 이를 받는데 內喪에는 顧命이 없다. 이 일이 끝난 후에 大臣 등이 물러가서 傳位遺教를 만들게 된다.¹¹⁾

兵曹에서는 여러 衛를 통솔하여 안밖의 문 및 宿衛해야 할 곳을 삼가 지킨다. 禮曹에서는 모든 喪事에 관한 일을 議政府에 申報하고 지방과 중앙에 공문을 보내어 沐浴, 飯含, 襲, 斂, 成殯, 成服, 治棹, 治葬, 停祭, 停樂 巷市하고 嫁娶를 금하고 屠殺을 禁하는 등의 일을 시행토록 한다.

吏曹에서는 의정부에 申報하고 殯殿·國葬·山陵의 3都監을 설치한다.¹²⁾ 3都監은 원래 고려 때에는 4都監 12色을 두어 殯殿·國葬·齋·造墓의 4都監을 두었으나 朝鮮朝 世宗 2년(1420년) 불교관계의 齋都監을 폐지하고 殯殿·國葬·山陵의 3都監만 두었다.¹³⁾

殯殿都監은 襲·斂·成殯·成服·魂殿·排備 등의 일을 맡게 된다.

國葬都監은 梓宮, 車輿, 冊寶, 服玩, 陵誌, 明器, 吉凶儀仗, 喪帷(喪葬時 쓰는 帳幕), 鋪筵(돛자리 등 바닥에 까는 물건), 祭器, 祭尊, 返虞(葬事지낸 뒤 神主를 모셔 돌아오는 일) 등의 일을 맡는다.

山陵都監은 玄宮(梓宮을 묻는 壙), 丁字閣(무덤 아래 홍살문 안에 陵을 향하여 용마루가 있는 丁字 모양이 되도록 세운 전각: 이곳에서 제사를 모심), 齋房(祭器를 간수하고 제사모시는 사람이 齋戒하는

처소) 등을 營造하는 일을 맡게 된다.¹⁴⁾

魂殿·魂宮都監은 國葬이나 禮葬 뒤에 宗廟에 배위할 때까지 神位를 모시던 일을 맡는데 王은 3년간 모시고, 만일 王妃가 먼저 昇遐하는 경우는 王이 昇遐할 때까지 모시게 된다. 따라서 殯殿·殯宮都監은 魂殿·魂宮都監과 같이 合本된 경우도 있고 따로 독립된 의제도 있다.

朝鮮朝 初期 王室은 그들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禮書 및 法典을 纂輯하여 頒布하였는데 成宗朝 國朝五禮儀와 經國大典은 대표적인 法典이다.

經國大典 禮典에 보면¹⁵⁾“凡儀註用五禮儀”라 하여 모든 儀典의 절차를 國朝五禮儀에 따라 尊用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國朝五禮儀에는 吉禮, 嘉禮, 軍禮, 賓禮, 凶禮의 5가지 儀禮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本稿와 관련된 凶禮부분은 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國朝五禮儀는 英祖 20년과 27년에 증보되었으나 다시 28년, 34년 喪禮만을 따로 독립시켜 國朝喪禮 補編이 纂輯되었다는 사실은 禮中에서도 특히 喪祭禮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王妃·世子嬪의 殯殿·殯宮都監儀軌 총 22件的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初期儀軌인 懿仁王后와 仁穆王后를 제외한 나머지 儀軌들은 거의 흡사한 體制를 갖추고 있다. 다만 2차 國朝喪禮補編이 纂輯되었던 英祖 34년(1758)을 기점으로 후반부 의례들은 양식의 통일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반부 의례들은 斂襲衣의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懿仁王后와 仁穆王后의 경우는 壬亂의 영향이 甚大하였던 관계로 특별한 양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의례들은 1758년을 전후로 兩分되고 있어서 편의상 懿仁王后(1600)부터 仁元王后(1757)까지 11件을 전반기 의례로, 貞純王后(1805)부터 純明妃(1904) 11件은 후반기 의례로 구분하였다.

전반기 의례 가운데 落張이 없고 보존상태가

10) 懿愍皇太子妃葬儀錄, 全州李氏大同宗約院, 1990, p. 41.

11) 國朝五禮儀, 卷之七 凶禮, 法制處: 一志社, 1982, p. 20.

12) 國朝五禮儀, 卷之七 凶禮, 法制處: 一志社, 1982, pp. 22~24.

13) 國譯世宗莊憲大王實錄 제9권, 3년 9월, pp. 8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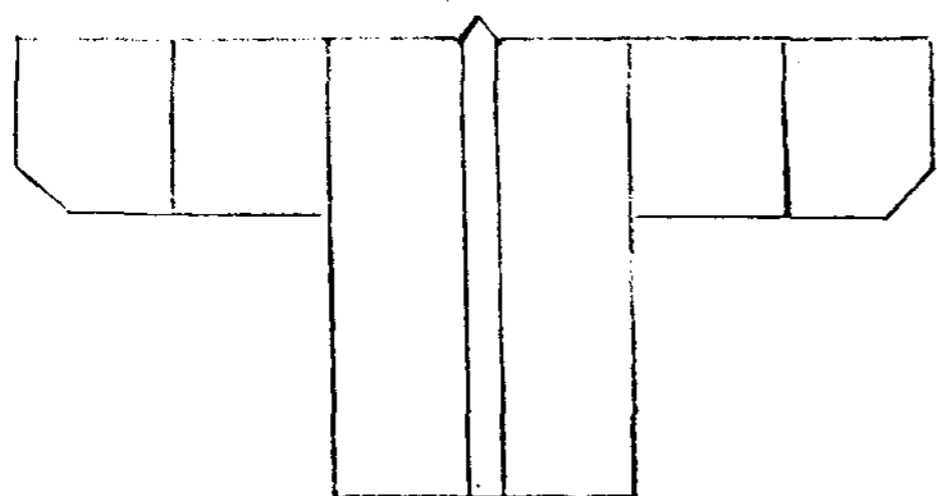
14) 國朝五禮儀, 卷之七 凶禮, 法制處: 一志社, 1982, pp. 22~24.

15) 經國大典 禮典 儀章, 法制處: 一志社, 1982, p.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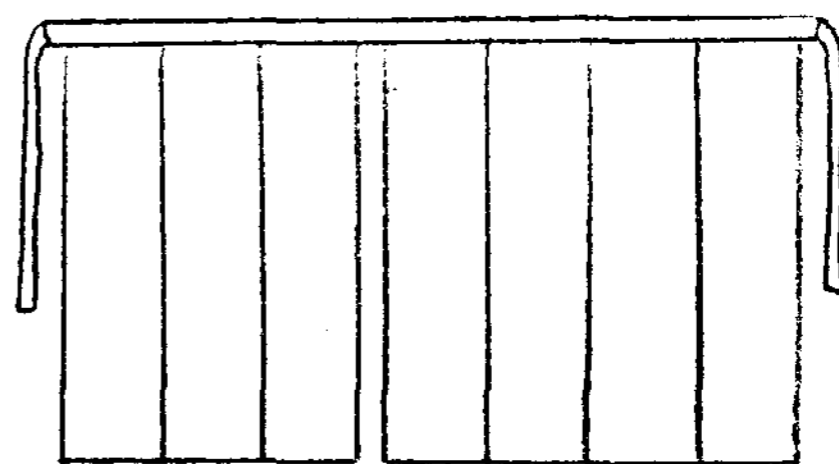
양호한 최초의 의례는 시기적으로 4번째에 속하는 肅宗妃 仁敬王后 殯殿都監儀軌인데 이를 통해서 의례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1680년 10월부터 1681년 2월까지 장례기록인 殯殿과 魂殿의 내용인데 卷頭에 素扇圖, 素蓋圖, 銘旌圖, 櫛宮圖 등의 圖式이 설명과 함께 실려 있다. 거행일지에 이어서 吏曹單子 명단과 事目 儀註 禮曹節目 啓辭秩 甘結秩 등의 기록과 祭尊 改銘旌 成服後 殯殿諸事 習儀後 發靱 山陵 등을 다루는 殯殿一房儀軌, 成服諸事를 관장하는 殯殿二房儀軌, 襲斂諸事, 櫛宮排說 등을 담당하는 殯殿三房儀軌로 구분되어 있다. 끝으로 殯殿別工作, 櫛宮別工作이 있으며 魂殿이 있는 경우는 계속 이어져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의례의 양식은 전·후반기 의례들과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나 圖式·순서·설명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本稿에서 研究하는 斂襲衣 부분은 儀註 가운데 沐浴, 襲, 小斂, 大斂과 襲斂諸事를 담당하는 三房儀軌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王室의 制度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儀註는 國朝五禮儀의 내용과 흡사할 뿐 아니라 國朝常禮補編의 간행으로 本儀軌에 반영된 결과를 파악해 보고자 먼저 이들의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Ⅲ. 王室의 斂襲衣



明衣



裳

<그림 1> 國朝喪禮補編(1752)

明衣裳用白絹袂屬幅之長過膝裳前三幅後四幅不襲長及靸¹⁸⁾

위의 내용 중 襲衣는 9稱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기록된 衣襟의 수량은 13件(帶, 襪제외)에 이르고 있다. 이에 관한 문제는 實錄 및 殯殿都監儀軌에도

1) 國朝五禮儀 및 國朝喪禮補編의 斂襲衣
國朝五禮儀와 國朝喪禮補編은 殯殿都監儀軌 이외의 王室의 斂襲制度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國朝五禮儀 卷之七 凶禮에는 국가의 葬禮儀式절차가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初終 復 易服 不食 戒令 沐浴 襲 尊 爲位 哭 舉臨 含 說水 靈座 銘旌 告社廟 小斂 尊 治棹 大斂 尊 成殯…… 등의 의식과 卷之八 凶禮에는 山陵享祀 의식부터 大夫 士 庶人의 喪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세분하여 기본제도를 확립시켜 놓았다.¹⁷⁾ 이 가운데 襲 小斂 大斂부분의 斂襲衣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① 襲

大帶一(表裏白羅紅綠緣若內喪則表裏青羅)

袞龍袍一(即胸背織龍圓領若內喪則長衫及衣裳汗衫之類) 紵絲襪履一(即半臂衣) 帖裏一, 羅圓領一, 襪履一, 帖裏一(已上 鋪襲)

紅紵絲圓領一, 襪履一, 帖裏一, 白絹裹肚一, 白絹汗衫一, 白絹袴二, 白絹襪一(已上 被體)

於其上凡九稱雜用襪履(衣衾等物皆尙衣院供進)로 되어 있고 또 網巾 首冠 充耳 幘目 幄手 履 등을 준비한다. 沐浴이 끝나고 襲을 行하는데 上服과 首冠은 입히지 않았다가 含이 끝나면 시행한다. 沐浴時에는 明衣를 입히는데 白絹單衣이며 內喪에는 衣와 裳을 갖춘다고 기록되어 있다.

종종 논의되고 있어 당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조 26년 개장도감에서 曰¹⁹⁾ “<五禮儀>에 襲時 옷을 9칭으로 쓴다고

16) 仁敬王后 殯殿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17) 國朝五禮儀, 卷之七, 八 凶禮, pp. 21~27.

18) 國朝喪禮補編, 英祖 28년(1752),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19) 宣祖實錄, 26년 5월 己卯, 국사편찬위원회

하였는데 흑자는 옷 하나가 1칭이라 하고 흑자는 홀과 겹이 갖추어야 1칭이라 하니 분간하기 어렵다. 대신과 2品 이상 관원에게 물으니 禮曹에서도 같은 의견이라 망설여진다. 襲衣 내용 중 帖裏 이상은 모두 正衣이고 裹肚 이하는 便短한 복색이니 이를 보명 칭은 正衣 한가지를 말하는 것 같다” 한 것으로 보아 올바른 판단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곤룡포 답호 첩리, 단령 답호 첩리, 단령 답호 첩리로 1벌씩 맞추어져 9칭으로 되어 있다.

② 小斂…… 第三日

鋪衾次鋪散衣次鋪絳紗袍一襲凡斂衣十九稱(皆用複衣複衾)이며 禮를 마치면 少斂牀으로 옮긴 후 버개를 빼고 疊衣를 펴서 머리맡에 깔고 양 끝을 말아서 양 어깨쪽의 빈곳을 채우고 또 옷을 말아 양 정강이 사이에 끼워서 方正을 취한 후 남은 옷들은 左衽不紐한다. 이불로 斂하는데 絞로 묶지 않고 덮는다.

③ 大斂…… 第五日

鋪衾次鋪冕服一襲(其佩玉安於梓宮內左右玉圭亦在左……○若內喪則用本朝命服)次鋪散衣凡斂衣九十稱(皆用袷衣袷衾)이며 錦冒와 黼殺를 담아 東北쪽에 놓아둔다.

禮를 마치면 소렴 때와 같이 염하고 絞를 묶은 다음 보채로 발로부터 위로 올려 감추고 금모를 머리로부터 아래로 썩운다. 7帶를 매고 梓宮에 모신다. 평시에 빠진 齒髮, 작은 손톱·발톱을 재궁 4 구석에 넣고 빈곳에 옷을 말아 넣어 평탄하게 한다. 관 뚜껑을 덮고 衽을 박고 그곳에 옷칠한 細布를 둘러 붙이고 繡黼棺衣(紅紵絲로 만들고 도끼모양을 粉彩로 그린다)로 덮고 병풍을 친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襲衣 9칭, 小斂衣 19칭, 大斂衣 90칭으로 되어 있으나 內喪(王妃喪)의 내용은 간단하고 王의 衣樹(袷褱帖裏 圓領絳紗袍 등)가 기록되고 있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歷代殯殿都監儀軌에도 나타나도 있다(後述). 內喪에는 女官이 직접 참여한다.

國朝喪禮補編은 英祖 27년(1752), 34년(1758) 두 차례에 걸쳐 纂輯된 것을 보아도 喪禮에 대한 비중을 짐작해 볼 수 있다.

國朝喪禮補編(1752년) 御製 序文에²⁰⁾ “근래에 度支에서 定例할 때에 喪禮도 定例로 만들려고

했으나 하지 못하고 冬春이래 諸具 중에서 艱요하거나 바르지 않는 것을 함께 刪去하여 規범에 맞게 하고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은 先後가 있도록 하고 서로 큰 차이가 나는 것 또한 釐正하게 하여 重臣·宰臣들에게 命하여 편집케 하고 <國朝喪禮補編>이라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이후에는 국가의 大·小喪에 이를 살려서 행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나의 생각이겠는가. 列朝의 儉德을 본받고 慈闈의 指教를 받드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孔子가 <禮는 사치하기 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고 한 뜻이다. 왕위를 계승하는 자가 슬픔에 빠져 이 뜻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 조금이라고 比禮를 어긴다면 어찌 孝라고 하겠는가. 바로 나를 어기는 것이다. 특별히 卷首에 題하여 깊은 뜻을 표한다”라고 되어 있어 편찬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國朝喪禮補編(1752년) 卷頭 目次를 보면 五禮儀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각각의 儀式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五禮儀 후반부 의식절차가 많이 생략되어 있고 梓宮加漆時哭臨儀… 등등 새로 추가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斂襲衣 내용은 부분적인 변화가 있으며 圖說부분이 추가되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또한 世子·世子嬪의 경우가 추가되어 있고 내용은 五禮儀와 거의 동일하다.

斂襲衣 관련부분의 변동사항을 五禮儀와 비교해 보면

◎ 襲時

- 大帶→玉帶
- 袴二→2개의 바지(袴) 중 하나는 單袴
- 履→靴 1雙(內喪: 赤烏 殯宮: 黑烏)
襪 1雙(內喪: 赤襪 殯宮: 黑襪)
- 尙衣院 供進→內備(“因”特教永除進排之規而自內措備者 書以內備凡禮 1~8 참조)
- 翼善冠→內喪에는 髻(一名 首冠, 一名 首吧)
- 襲時 右衽
- 袞龍袍(平日御用)부터 帖裏까지(9칭) 內喪에는 없다.

◎ 小斂時

- 殯宮……第二日
絳紗袍(平日御用, 內喪은 佩玉을 그린 長衫과 汗衫류이다.

20) 國朝喪禮補編, 英祖 28년(1752),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 斂衣 19칭 所用

紵絲汗衫 三(白紵布)

單衣 三(表 紅廣織 裏 白絹)

單衣 三(表 無紋綠紗 裏 白絹)

袂帖裏 二(表 無紋紅紗 裏 白絹)

帖裏 二(白紵布)

袴 三(表 白紡紬 裏 白紵布)

裹肚 三(表 綠廣織 裏 白鼎紬)

內喪은 長衫 汗衫之類(內備)

小斂時 斂衣(散衣)左袵不紐

◎ 大斂時

• 殯宮……第三日

• 冕服一襲(平日御用·冕衣 曲領 裳 綬 鞞 帶 珮 圭 襪 舄)

등의 변동 및 추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英祖 34년(1758)의 國朝喪禮補編 내용 중 御製後序와 斂襲衣 부분에 受教分類를 살펴보면²¹⁾ 다음과 같다.

御製國朝喪禮補編後序에 보면 “…壬申年(1752)에 補編을 編修하였으나 차례가 서로 바뀌거나 지나치게 생략되어 考閱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다시 한번 編修코저 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망극하게도 금년(1757) 2달 사이에 국상이 겹쳐 蒼黃한 때 考據하기가 더욱 어려웠던 차에 ‘크고 작은 모든 절차가 생략되거나 지나친 것이 매우 많다’는 慈教를 받들게 되었다…原文(五禮儀)과 補編을 서로 살피어 전에 고찰하기 어려웠던 것을 지금 매우 쉽게 하고 의문시 되었던 것을 상세히 갖추었다. 聖考께서 喪制를 회복하신 聖意를 밝히고 慈聖께서 儉德을 밝히신 慈意를 따랐다…” 하였듯이 圖說부분을 別冊으로 만들어 2卷으로 하였으며 그림과 같이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王室의 喪葬制度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 襲時

- 大·小斂에서 일찌기 紋緞으로 사용하던 것을 廣織으로 대신하고 綾은 紡紬로, 紡紬 및 潞州紬는 紬로 대신하도록 命하였다.
- 襲과 斂할 때 褥을 緞으로 했으나 紅緞 대신 紫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 ‘省浮費以除民弊’라고 기록하도록 지시하였다.

◎ 小斂時

• 긴요하지 않은데 헛되이 낭비하는 것 또한 사치인데 襲과 小斂할 때 낭비를 줄여서 민폐를 제거하도록 命하였다.

• 大斂할 때 사용하는 紡紬 三匹 이외에는 사용을 불허하였다.

◎ 大斂時

• 天衾은 緞을 사용하되 表는 紫色, 裏는 青色으로 하였다(內外喪이 같다).

• 平天冠 櫛 등은 佩玉例에 의거하여 粉畫한 旒珠, 五色紬로 조성

• 小喪의 경우도 禮文에 의거해서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 翟衣와 諸具는 ‘內備’라고 註를 달도록 하였다. 위의 내용은 실제 國葬諸行事에 반영되었음이 후반기 빈전도감의례에 나타나고 있다.

2) 殯殿都監儀軌의 斂襲衣

前章에서 밝혔듯이 妃·嬪의 歷代 殯殿都監儀軌는 英祖 34년(1758)을 전후해서 前·後半期로 구분하였는데 前半期儀軌는 懿仁王后(1600), 仁穆王后(1632), 仁宣后(1674), 明聖王后(1683), 仁敬王后(1680), 仁顯王后(1701), 端懿嬪(1718), 宣懿王后(1730), 孝純賢嬪(1751), 仁元王后(1757), 貞聖王后(1757) 등 11件이며 後半期儀軌는 貞純王后(1805), 獻敬惠嬪(1815), 孝懿王后(1821), 顯穆綏嬪(1822), 孝顯王后(1843), 純元王后(1860), 哲仁王后(1878), 神貞王后(1886), 明成王后(1895), 孝定王后(1903), 純明妃(1904)의 11件이다.

殯殿都監儀軌는 國葬時 襲 斂 成殯 成服 魂殿 排備 등을 관장하는데 復 易服不食 沐浴 襲 襲奠 爲位哭 說水 靈座 銘旌 小斂 小斂奠 治棹 大斂 小斂奠 成殯 成殯奠 廬次 成服 등의 순서로 장례의식이 거행되며 각 郎廳에서 分掌하게 된다. 一房所掌으로는 祭尊諸具 改銘旌 成服後 殯殿諸事及習儀 發靱 時到 山陵等事專掌, 二房所掌에서는 成服諸事專掌, 三房에서는 襲斂諸事 櫛宮排說等事專掌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의례들 중에서는 儀註斂襲儀와 三房儀軌를 중점적으로 고찰하면 王室의 斂襲制度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三房에서는 각각의

21) 國朝喪禮補編, 卷之四, 英祖 34년(1758),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儀式諸具(初喪諸具)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懿仁·仁穆王后를 제외한 역대 의례들은 거의 동일한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斂襲衣에서 襲 9칭, 小斂 19칭, 大斂 90칭으로 통일되고 있는 등 五禮儀의 制度와 동일하다. 그러나 端懿嬪의 경우는 20件을 減하라는 지시대로 대령의가 70칭이며 宣懿王后 소령의 90칭, 仁敬王后, 顯穆綏嬪 神貞王后 明成王后 대령의가 19칭으로 기재된 것은 誤記로 보이며 誤記가 발견될 때마다 御覽用 의례도와 비교가 필수적이다. 補編의 纂輯과 아울러 前·後 儀軌로 구분된 것은 특히 三房儀軌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전반기 의례들은 각각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후반기 의례들은 補編의 지시를 따라 통일된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前半期 儀軌들은 斂襲衣의 記錄이 後半期 儀軌보다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前半期 儀軌 가운데 肅宗妃 仁敬王后 儀軌(1680年)는 落張이 없이 상태가 양호한 初盤에 속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²²⁾

앞부분에 素扇圖, 銘旌圖... 등의 그림이 있고 거행일지 및 分掌 담당자의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儀註가 나타나는데 復 易服不食 沐浴 襲 襲尊 舉臨 含 靈座 銘旌 小斂(第三日) 小斂尊 治棹 大斂(第五日) 大斂尊...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襲에는 大帶一(表裡靑羅), 長衫一(衣裳汗衫之類), 搭襪一, 帖裏一(己上鋪襲), 紅紵絲圓領一, 搭襪一, 帖裏一, 白絹裹肚一, 白絹汗衫, 白絹袴二, 白絹襪一(己上被體), 於其上(凡九稱雜用搭襪 尙衣院 供進), 冠 充耳二, 幘目一, 幄手二, 履一雙으로 되어 있다.

小斂에는 鋪衾次鋪散衣凡斂衣 十九稱(皆用複衣複衾)이며 大斂에는 鋪衾次鋪命服一襲(本朝命服) 次鋪散衣凡斂衣 九十稱(皆用袷衣袷衾 十九稱으로 되어 있으나 誤記가 확실함)으로 나타나 있다. 계속해서 殯殿一, 二, 三房所掌으로 분류되어 각기 所用 諸具들이 치수·재료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단 衣襪만은 명칭과 수량 등을 기록하고 있다.

殯殿三房 沐浴所用諸具에는 帷 牀 素屏 褥 衾

小囊子, 梳... 등 각종 제구와 方巾 明衣(上衣 下裳 白絹二十三尺) 長衫(大紅花紋紗 二十三尺五寸) 假玉帶 등이 마련되고 있으며 襲諸具에도 魂帛 褥 衾을 비롯해서 首冠 大帶 幘目 幄手 充耳 襪履 등과 內備衣襪十二稱, 外備衣襪十稱이 보이고 있다. 外備衣襪는 10칭의 내용을 적고 있는데 白苧汗衫二, 白苧布小赤衫二, 白苧單袴二, 紅絹袂赤尒一, 藍絹袂赤尒二, 大紅雲紋段 長衫一(尙衣院)이다.

小斂行用諸具에도 牀 褥 地衣 衾 屏風 斂布(白方絲絢 二匹)을 포함하여 內備衣襪四十二稱 外備衣襪九稱이 보이고 있는데 역시 外備衣襪에는 雅靑匹段袂長衣一, 雅靑匹段袂赤尒一, 藍雲紋匹段袂赤尒一, 藍絹袂赤尒一, 草綠匹段赤尒一, 藍雲紋袂赤尒一, 白苧布單赤尒二, 白花絲絢抹袴一 라고 기록되고 있다.

大斂行用諸具에는 地衣 帷 褥 絞 衾 冒 殺... 등과 內備衣襪 九十二稱, 外備衣襪 一百二十九稱으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끝부분에 外備衣襪 內入 匹段數가 기록되고 있는데 藍雲紋匹段 二匹, 藍花紋匹段 八匹, 藍花宮絹 一匹, 藍廣的一匹, 泯色廣的一匹, 草綠花紋匹段 九匹, 草綠雲紋匹段 二匹, 大紅花紋匹段 七匹, 大紅花紋宮絹 一匹, 雅靑雲紋匹段 二匹, 白綾四匹, 泯色花紋匹段 一匹, 冒段 六匹, 草綠花紋紗 二匹, 內拱次白方絲絢 九十三匹 白花絲絢 七十匹로써 총 46匹段과 內拱 163匹의 소요량을 적고 있다.

殯殿이 끝나면 이어서 魂殿都監儀軌가 계속되는데 一, 二, 三房으로 分掌된 것은 빈전과 같으며 혼전은 따로 독립된 의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은 의례의 양식은 前半期 儀軌의 대표적인 것으로 儀註 斂襲衣는 五禮儀와 같이 襲衣 9稱, 小斂衣 19稱, 大斂衣 90稱으로 되어 있으나 三房內容에는 襲, 小斂·大斂에 內備衣襪 146稱, 外備衣襪 148稱이 所用되고 있다.

이와 같이 五禮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王의 特敎를 따르고 있는 사정은 仁宣王后의 경우에도 보이는데²³⁾

仁宣王后 國葬時에도 梓宮의 尺數가 너무 길어서

22) 仁敬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1680),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23) 이궁익 편, 국역연려실기술 IX, 별집 제2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7, p. 92.

見樣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해 論議하였는데 민간에 있는 板材로 적당한 것을 구하도록 命하자 “祖宗朝 이후로 梓宮의 尺數가 맞지 않은 것이 많았으나 임박해서 고쳐 사용한 경우는 없었으니 청하옵건데 衣服으로 공간을 메꾸어 쓰옵소서”라고 아뢰자 “나도 이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공간을 衣服으로 채운다면 발인전 여러달 동안 어찌 흠이 없겠는가. 더욱이 넓이의 여유가 一分밖에 안되니 더욱 난처하다” 하고 재고하도록 지시하자 모든 재상들이 梓宮이 길이만 길고 넓이의 폭이 적어 도저히 쓸 수 없음을 고하고 寧陵을 遷奉할 때에 따로 준비했던 梓宮을 사용하였는데 길이와 넓이가 너무 커서 衣襟의 數를 常規에 한정하지 않고 따로 많이 써서 補空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前半期 儀軌의 斂衣가 禮制에 어긋나나 內備로써 특별히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國喪 때에 쓸 梓宮은 때를 당하여 만들었는데 世宗 15年 舍人 鄭陟이 미리 壽棺을 만들기를 청하니 조정에서 옮겨 여저 長生殿을 세우고 黃腸木을 구해다가 만들게 하여 國喪에 制度가 비로서 갖추어 졌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⁴⁾

世宗 5年 11月 詳定所에서 啓하기를 “옛 制度에 襲衣는 天子 12稱, 上公 9稱, 諸候는 7稱, 大夫 5稱, 士 3稱이며 小斂衣는 天子부터 士까지 19稱, 大斂衣는 天子 120稱, 上公 90稱, 諸候·伯爵·子爵·男爵은 70稱, 大夫 50稱, 士 30稱이었는데 本國에서는 恭靖大王(定宗)에는 襲衣 7稱, 小斂衣 15稱, 大斂衣 38稱이었고 元敬王后 初喪에는 襲衣 7稱, 小斂衣 19稱, 大斂衣 90稱이었으며, 太宗時는 襲衣가 7稱, 小斂衣가 19稱, 大斂衣가 40稱었다.”²⁵⁾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國初에는 絜습제도에 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後半期 儀軌들은 2次에 걸친 國朝喪禮補編 纂輯의 영향으로 통일성을 보이고 있는데 貞純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1805년)를 보면 舉行日記가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다. 儀軌는 復尊 易服不食 沐浴 襲尊 爲位哭 舉臨 含 靈座 銘旌 小斂(第三

日) 尊 治棹 大斂(第五日) 尊 成殯... 등을 되어 있다.

襲에는 玉帶一, 長衫及衣裳之類 白絹裹肚一, 白絹汗衫一, 白絹袴二(一單袴), 白絹襪一雙(以上 被體) 於其上凡九稱 雜用褙履(內備) 首冠 充耳二, 瞑目一, 幄手二, 赤舄 一雙...이며 小斂에는 次鋪衾 次鋪散衣次鋪長衫(畫佩玉) 凡斂衣 十九稱(皆用複衣複衾)으로 되어 있고 大斂에는 次鋪衾次鋪散衣 凡斂衣 九十稱(皆用袷衣袷衾)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三房儀軌에는 初喪諸具에 儀註에 필요한 各各의 衣物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먼저 沐浴諸具로 帷 素屏 牀 褥 衾 梳 小囊 筆 黑 明衣 方巾... 등이 있으며 襲諸具는 帷 屏 衾 褥 등을 비롯해서 褙履一, 首冠一, 充耳二, 瞑目一, 幄手二, 金冒黼殺 玉帶一, 畫玉珮 裹肚一, 長衫一, 汗衫一, 袴一, 單袴一, 襪一雙, 舄一部 등이다. 小斂諸具는 帷 屏 牀 地衣 褥... 등을 포함해서 長衫一, 斂衣 十九稱(內備)이며 大斂諸具는 帷 屏 牀 地衣 褥... 등과 斂衣 九十稱(內備)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國朝喪禮補編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後半期 儀軌들은 거의 동일한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심지어 高宗妃 明成王后의 경우에는 1895年 10月 8日로 시해되어 15日에 復儀로부터 2년이 경과한 1897年 10月 28日 下玄宮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儀軌의 내용대로 기록하고 있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實行의 의미보다는 형식상의 기록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 英祖 33年(1757년)의 國葬인 貞聖王后(英祖妃), 仁元王后(肅宗妃)의 경우 小斂儀註에 絳紗袍로 되어 있고 三房에는 長衫으로 기록하고 있어²⁶⁾ 儀註의 기록들이 實行보다는 형식적인 기록임을 알 수 있고 前半期 儀軌 襲衣 중 帖裏褙履 團領 등 王의 衣襟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같은 경우로 생각된다. 따라서 斂襲衣의 내용에 융통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이궁익 편, 국역연려실기술 IX, 별집 제2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7, p. 85.

25) 국역세종장헌대왕실록 제22권, 세종 5년 11월 p. 400.

26) 貞聖王后 殯殿都監儀軌, 규장각도서

仁元王后 殯殿都監儀軌, 규장각도서

IV. 懿仁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의 服飾

宣祖妃 懿仁王后 朴氏는 本貫은 羅州이며 領敦寧府事 潘城府院君贈 領議政 應順의 딸로서 嘉靖乙卯 明宗 10年(1555) 4月 15日에 태어나서 隆慶 己巳 宣祖 2年(1569) 王妃로 冊封되어 嘉禮를 올렸다. 萬曆 庚寅 宣祖 23年(1590) 章聖의 존호를 올렸고 宣祖 33年(1600) 6月 27日 황하방 별궁에서 46才로 昇遐하였다. 宣祖 甲辰(1604)에 徽烈, 光海 庚戌(1610)에 貞憲의 존호를 추증하였고 庚子年 12月 22日 장사지냈다.²⁷⁾

本儀軌의 論議과정을 보면 亂 直後이기 때문에 登錄된 것이 없고 전에 쓰던 참고할만 한 것이 없으니 女官中에 전례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글로 쓰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여름은 날씨 때문에 급하므로 얼음을 준비하도록 하고 소렴구가 준비되는 대로 소렴 3日 前이라도 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대령의 90칭 소용의대를 예문대로 겹옷으로 만들면 梓宮이 闊大하여 채울 수 없음을 염려하고 있다. 梓宮은 天·地·玄 세가지가 있으며 玄字 재궁을 써야하는데 겹옷만으로는 수백벌을 써야 하므로 시속대로 솜옷을 쓸 것을 여러 차례 상소하고 있다.

여름인데 솜옷을 쓰는 것은 더욱 예에 어긋난 일임을 강조하고 허락치 않다가 大斂日을 연기해야만 가능하다는 도감의 啓가 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솜옷 사용여부와 稱의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儀軌의 내용에는 솜옷이 여러 벌 있으며 大斂 外備 소용에 衣襖一百二十七件 內襦四十六, 袂三十六, 單 四十五로 밝혀 놓고 있다.²⁸⁾

懿仁王后 殯殿都監儀軌에는 襲, 小斂·大斂에 소용되었던 衣襖의 명칭들이 色, 材料名과 함께 낱낱이 기록되고 있으며 歷代嘉禮都監에 나타난 衣襖類와 비교해 볼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현재까지의 연구 내용보다 확실한

고증자료가 되고 있다. 더욱이 빈전도감의례는 주인공 한분의 평생의 衣襖이므로 많은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袍, 上衣, 下衣, 기타류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²⁹⁾

본 의례는 거행일지 儀註 등이 생략되었을 뿐 아니라 뒷부분에 落張이 있어 전반적인 의례 양식을 고찰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襲時 內用衣襖로 冠壹, 頭巾參을 비롯하여 13件의 服飾, 外備衣襖 12件, 小斂時 內用衣襖 34件, 外備衣襖 9件, 大斂時 內用衣襖 42件, 外備衣襖 129件의 服飾 등 243件이 斂襲衣에 쓰여졌다.

1) 袍類

長衫 3점, 長衣 43점이며 道袍 1점, 添里 1점이 포함되어 있다.

• 長衫

襲時 大紅雲紋紗, 小斂時 黃紗, 大斂時 大紅錦으로 되어 있고 大紅匹緞 金道多益帶가 있다.

• 長衣

長衣 38점, 袂長衣 3점, 襦長衣 2점으로 3종류 43점이 있다.

袂長衣는 襲, 小斂·大斂에 각 1벌씩 사용되었고, 長衣는 襲과 大斂에, 襦長衣는 大斂에 사용되었다.

색상은 白 1점, 鴉青 8점, 冒 21점, 草綠 3점, 甫羅 1점, 北京青 1점, 紫的 5점, 沉香 3점으로 8종류이다.

옷감은 苧布, 花紋潞洲, 潞洲紬, 段, 花紋匹段, 綃, 紬이다.

이외에 草綠匹段道袍 1점, 草綠匹段添里 1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仁祖 殯殿都監儀軌(1649년) 중 大斂時 內備衣襖 가운데 草綠有紋紗 唐衣³⁰⁾가 있을 뿐 아니라 出土服飾 가운데 宣祖 曾孫 耽陵君의 경우 여자 저고리 1점³¹⁾이 포함되어 있어 葬俗 중 夫婦偕老의 의미로 영혼을 위로하는 풍습은 宮中에서도 시행된 것 같다.

27) 이궁익 편, 국역연려실기술 III,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7, p. 222.

28) 실제로 기록된 衣襖는 129件으로써 이는 전반기의 의례들이 대령외비의대에 129칭과 동일하므로 오기임이 확실하다.

29) 懿仁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30) 仁祖 殯殿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31) 第2回 壽衣特別展, 단국대학교 민속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圖錄, 1982.

2) 上衣類

上衣類에는 汗衫 3점, 赤衫 36점, 赤古里 37점, 肩尔只 12점 등이 있다.

• 汗衫

汗衫 2점, 長汗衫 1점으로 2종류 3점이 있다. 색상과 옷감은 모두 白苧布이다.

汗衫은 襲의 外備衣襟에 사용했고, 長汗衫은 小斂의 內用衣襟에 사용했다.

• 赤衫

赤衫 18점, 小赤衫 18점으로 2종류 36점이다.

색상은 苧布色 2점, 白 25점, 黃 1점, 鴉青 5점, 藍 3점으로 5색상이다.

옷감은 苧布, 紗, 雲紋紗·花紋紗·絹이다.

小赤衫은 襲, 小斂, 大斂에 사용되었으며 옷감이 모두 苧布이다.

赤衫은 大斂에만 사용되었으며 색상과 옷감의 종류도 다양하다.

• 赤古里

赤古里 26점, 小赤古里 5점, 袂赤古里 1점, 襦赤古里 3점, 回粧赤古里 2점으로 5종류 37점이 있다.

색상은 靑 1점, 草綠 9점, 鴉青 5점, 甫羅 1점, 沉香 4점, 北京靑 1점, 藍 4점, 大紅 3점, 紫的 3점, 冒 1점, 白 5점으로 11색상이다.

옷감은 錦線, 匹段, 花紋潞州紬, 紋匹段, 花紋匹段, 潞州紬, 花紋綾, 抗紗紬, 紬, 段, 綾이 사용되었다.

赤古리는 大斂의 內用·內備衣襟에 사용되었고, 수량도 많고, 색상도 다양하다.

小赤古리는 襲·大斂의 內用衣襟에 사용되었고 모두 白紬로 만들었다.

襦赤古리와 回粧赤古리는 색상 기록은 있으나, 소재의 기록은 없다.

• 肩尔只

肩尔只 4점, 小肩尔只 2점, 袂肩尔只 1점, 襦肩尔只 5점으로 4종류 12점이 있다.

색상은 白 2점, 紫的 4점, 鴉青 1점, 草綠 3점, 色이라고 기록된 2점으로 5종류이다.

옷감은 苧布·紬, 匹段이 있고 襦肩尔只에는 옷감의 내용 기록은 없다.

肩尔只는 襲·大斂에 사용되었고, 小肩尔只는 大斂, 袂肩尔只는 襲, 襦肩尔只는 小斂과 大斂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肩尔只類 모두 內用衣襟에만 사용했다.

3) 下衣類

赤尔 79점, 袴 15점, 抹袴 2점 등이 포함되고 있다.

• 赤尔

赤尔 45점, 單赤尔 8점, 袂赤尔 11점, 小赤尔 8점, 小袂赤尔 1점, 襦小赤尔 1점, 襦赤尔 5점으로 7종류 79점이 있다.

색상은 草綠 13점, 大紅 6점, 白 11점, 藍 24점, 夏玄紅 1점, 鴉青 5점, 柳黃 1점, 紫的 5점, 黃 2점, 深染草綠 1점, 黑 3점, 冒 2점, 沉香 1점, 軟草綠 1점, 紅 1점, 色 2점으로 16가지 색상이다.

옷감은 紬, 苧布, 花紋綾, 絹, 潞州紬, 花紋匹段, 花紋潞州紬, 漳州絹, 雲紋匹段, 權通, 雲紋紗, 屯絹, 紗, 水紋紗, 段, 無紋羅, 擣鍊紬, 絹로 매우 다양하다.

赤尔, 單赤尔는 小斂과 大斂에 사용되었고, 袂赤尔는 襲, 小斂·大斂 모두 사용되었고 小赤尔·小袂赤尔, 襦小赤尔 즉 小赤尔 종류는 小斂의 內用衣襟에만 사용되었다.

襦赤尔는 大斂의 內用衣襟에 사용되었다.

• 袴

袴 1점, 單袴 9점, 袂袴 5점으로 3종류 15점이 있다.

색상이 기록되지 않은 紬 絹 3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白色이며 옷감은 紬, 絹, 苧布의 3종류이다.

袴는 大斂 內用衣襟에 사용되었고, 單袴는 襲·大斂의 內用·外襟에 사용되었고, 袂袴는 襲·大斂에 사용되었으며 옷감은 모두 紬이다.

• 抹袴

抹袴와 末袴 표기 2종류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옷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抹袴는 小斂 外備에 사용되었고 1점으로 白花紋綾 1匹長 24尺이고, 末袴는 大斂 內用衣備로 1점이며 白錦線으로 만들었다.

4) 其他類

小斂 內用衣襟의 마지막 부분과 大斂 內用衣襟 마지막 부분에 白紬襦之道 壹, 草綠紬襦之道 壹이 보이고 있는데, 솜옷 종류인 것 이외에는 확실치 않다. 다만 끝부분에 기록한 것으로 보아 옷의 형태가 이런 부속품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된다. 혹시

글 뜻으로 해석하여 핫길 즉 숨을 놓은 길 부분으로 옷을 완성하기전의 일부분이 아닌가도 생각되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연구해야할 것으로 미루어 둔다.

이외에 冠帽 종류가 襲 內用衣櫥에 3점이 나타난다. 즉 鴉青匹段冠 壹, 頭巾 參으로 기록되어 있어 확실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襲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 首冠이나 幘目 종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大斂內用衣櫥에 鴉青匹段 耳掩 壹, 紫的羅 汝火 壹도 보이고 있다.

帶 2점은 長衫의 소용으로 보이고 있는데 小斂內用衣櫥에 黃紗長衫, 大紅匹段帶, 大斂內用衣櫥에 大紅錦長衫, 大紅匹段金道多益帶의 기록이 나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長衫의 소용이 확실하다 黃色에 紅帶를 띠점이 특이하다.

大斂內用衣櫥에는 大紅錦線袂衾이 1점 포함되어 있다.

이상으로 本儀軌에 나타난 斂襲衣 합계는 총 243점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外梓宮所用 內出 기록으로 大紅廣紗 元衫 壹, 草綠匹段 赤古里 壹, 大紅匹段 赤古里 壹, 有青匹段 赤古里 壹, 白苧布 赤衫 貳, 白絹 赤衫 壹, 紫的紬襦肩 卍只 壹, 紫的紬單赤 卍 壹, 藍匹段赤

卍 壹 등 총 10점의 의복이 추가되고 있어 상당한 수량의 의대가 준비된 것을 알 수 있으며 元衫의 기록이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V. 仁穆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의 服飾

宣祖 繼妃 仁穆王后 金氏는 본관은 延安, 領敦寧府事延興府院君贈 領議政 懿愍公 悌男의 딸로써 만력 갑신년(宣祖 17年) 11月 4日 병술에 盤松坊에서 태어나 임인년(壬寅年)王妃로 책봉되어 태령관에서 가례를 올렸다. 宣祖 갑진년(甲辰年) 昭聖이라는 존호를 올렸고 광해 경술년(庚戌年)에 貞懿, 인조 갑진년(甲辰年) 明烈을 올렸다. 인조 10년(1632) 6월 28일 갑오에 仁慶宮 欽明殿에서 49才로 昇遐하였다.³²⁾

본 의례도 거행일기가 간단하고 二房에서 斂襲諸事를 담당하고 있다. 襲時 內備衣櫥 12件, 外備衣櫥 11件, 小斂時 內備衣櫥 41件, 外備衣櫥 9件, 大斂時 內備衣櫥 91件, 外備衣櫥 129件 등 모두 283件的 服飾類가 소용되고 있다. 그런데 본 의례는 外備衣櫥에 衣料와 함께 치수까지 기록해 놓고 있으나 同時代의 嘉禮都監儀軌의 소요량과 비교해 보면

<표 2> 殯殿都監儀軌와 嘉禮都監儀軌 服飾(옷감 소요량) 比較

	仁穆王后 殯殿都監儀軌	昭顯世子 嘉禮都監儀軌	仁祖莊烈后 嘉禮都監儀軌
	仁祖 10(1632年)	仁祖 5(1627年)	仁祖 16(1638年)
長衫	大紅雲紋紗 23.5尺(襲)	大紅匹段 20.5尺, 內拱 藍絹 20.5尺, 苔袖 同正(胸背袂長衫)	大紅花紋匹段 一匹, 內拱 大紅鼎紬 一匹, 苔紬 同正(胸背袂長衫) (英祖 貞純后 嘉禮時 尙宮單長衫은 雅青紗 23.5尺, 苔袖 同正)
赤古里	襦赤古里 紫的花紋匹段 6.8尺, 內拱 白紬 十二尺 綿花 8兩 回粧赤古里 大紅匹段 3.8尺 草綠匹段 3尺 內拱白紬 12.5尺	襦赤古里 草綠鳳花紋匹段 11.3尺, 內拱 紅熟絹 11.3尺, 中綿子 十兩 短赤古里 織金青匹段 8.5尺, 大紅錦線 2尺, 內拱 黃熟絹 10.5尺	襦赤古里 紫的花紋匹段 15尺, 內拱 大紅鼎紬 一匹, 中綿子 十兩 短赤古里 青金線 10尺, 紅金線半骨 6.6尺, 內拱 黃熟絹 10.5尺
赤 卍	襦赤 卍 藍花紋匹段 12.3尺, 內拱 白紬 25尺 6寸 5分, 腰腰並白紬 各一尺, 綿花 十兩	赤 卍 紫的匹段 17.5尺, 內拱 白絹 17.6尺, 腰腰 白絹 4尺	襦赤 卍 紫的匹段 28尺, 內拱 白鼎紬 一匹, 腰及纓子 白絹 8.4尺, 中綿子 1尺 四兩

32) 이궁익 편, 국역연려실기술 III, 민속문화추진위원회, 1977, p. 223.

현저하게 적은 양으로 기록되어 있다(襲時 長衫 제외).³³⁾〈표 2〉

이상으로 長衫, 赤巾, 赤古里 중에서 衣料가 同一한 것을 선택하여 비교해 본 결과 襲時 長衫은 거의 비슷하며 尙宮의 長衫과는 똑같은 치수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小斂·大斂(本朝命服)에도 소용되고 있어 평상시와 동일한 제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치마 저고리의 경우는 $\frac{1}{2}$ 또는 더 작은 양의 옷감이 기록되고 있다. 이는 五禮儀序例에 服玩制度를 平時의 半으로 하고 있으며³⁴⁾ 國朝 喪禮補編 服玩에는 平時의 $\frac{1}{5}$ 로 규정하고 있는 바,³⁵⁾ 本 儀軌의 外備衣襟은 服玩制度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小斂日 第三日, 大斂日 第五日임을 감안할 때 많은 양의 斂衣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좀 더 연구해 볼 과제로 남겨둔다.

內拱이 모두 白色 비단(주로 白紬)으로만 되어 있는 점이 또한 특이하다.

1) 袍類

의衣 6점, 露衣 1점, 長衫 1점, 長衣 50점이 있다.

• 的衣

인목왕후 빈전·혼전도감에 보이는 的衣는 的衣와 袂的衣이다.

的衣는 襲·小斂·大斂의 모든 절차에 4벌이 사용되었다. 색깔은 大紅·紫的·草綠의 3색이며, 옷감은 金線과 匹段·廣池兒가 쓰였다.

襲에 사용된 大紅 金線의 的衣는 雀肩花 胸排를 갖추고 大紅 匹陵의 都多益帶를 했다.

大斂에 사용된 大紅 廣池兒 的衣에도 雀胸排가 있다.

袂的衣는 大斂에 2벌이 사용되었는데 鴉靑과 草綠색이며, 옷감은 廣池兒와 匹段이다.

草綠 匹段의 袂的衣는 胸排를 갖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露衣

大斂에 1벌이 사용되었으며 大紅色의 廣池兒로 만들었다. 圓紋이 있다.

• 長衫

襲에 1벌이 사용되었다. 색깔은 大紅이며, 옷감은 雲紋紗이다. 옷감의 소요량은 23尺 5寸이다.

• 長衣

長衫은 小斂·大斂에만 사용되었다.

長衫의 종류는 4종류로 長衣 2점, 袂長衣 23점, 襦長衣 24점, 納長衣 1점이 있고 총 50점이다.

색깔은 草綠 13점, 紫的 4점, 鴉靑 7점, 冒(검정) 21점, 北京靑 1점, 沉香色 3점, 甫羅 1점으로 7종류이다.

옷감은 雲紋紗, 花紋綾, 匹段, 吐紬, 鄉織, 潞州紬(花紋), 段, 綃, 絹, 紬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袂長衣의 內拱은 모두 白紬를 사용했으며 1벌당 30尺이 소요되었고, 襦長衣의 綿花는 1벌당 1斤 8兩이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대림에 사용된 紫的 花紋綾은 同色 潞州紬로, 北京靑은 玄色 廣的으로, 沉香色 匹段은 同色 有紋潞州紬, 甫羅 花紋匹段은 柔綠匹段, 鴉靑 絹은 同色 無紋潞州紬, 草綠紬는 同色 無紋潞州紬로 대체하여 사용된 것을 기록으로 보아 알 수 있다.

2) 上衣類

唐衣 6점, 串衣 23점, 腋巾只 17점, 赤古里 33점, 赤衫 31점, 汗衫 16점, 背巨里 2점 등이 있다.

• 唐衣

唐衣는 大斂 內備衣襟에만 사용되었으며 종류에는 2종류로서 長單唐衣 3벌, 袂長唐衣 3벌로 총 6점이 있다.

색깔은 모두 草綠이다.

옷감은 匹段, 絹, 紗, 吐紬가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袂長唐의 1벌(草綠 匹段)에는 胸排가 갖추어져 있다.

33) 仁穆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昭顯世子 嘉禮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仁祖莊烈后 嘉禮都監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34) 國朝五禮儀序例, 服玩圖說,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35) 國朝喪禮神編, 服玩圖說,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 串衣

串衣는 小串衣 4점, 袂小串衣 5점, 襖小串衣 10점, 納小串衣 2점, 唐串衣 1점, 袂唐串衣 1점로서 6종류 23점이 있다.

襲과 大斂에 사용되었으나 이중 襲에 사용된串衣는 袂小串衣·唐串衣 각 1점이다.

색깔은 藍 1점, 白 7점, 紫的 2점, 草綠 12점, 柔綠 1점으로 5색상이다.

옷감은 匹段, 綾, 絹, 鄉織, 絹, 吐紬, 花絲紬가 사용되었다.

串衣類 중 小串衣 4종류(小串衣, 袂小串衣, 襖小串衣, 納小串衣) 모두 白絹로 만든 것이 있다.

唐串衣 2점 중 襲에 사용된 草綠 匹段 唐串衣는 雀肩四胸排가 있고, 袂唐串衣에는 雀무늬가 있다.

• 腋尔只

腋尔只는 腋尔只 5점, 袂腋尔只 8점, 襖腋尔只 4점으로 3종류 17점이 있다.

小斂과 大斂이 內備에 사용되었으나, 小斂에는 草綠縐紗 1벌만 사용되었다.

색상은 草綠 8점, 紫的 5점, 柔綠 4점의 3색상이다.

옷감은 縐紗, 匹段, 吐紬, 鄉織이 사용되었다.

腋尔只의 색상은 草綠과 紫赤이고, 袂腋尔只는 柔綠과 草綠, 襖腋尔只는 紫的·柔綠·草綠이다.

• 赤古里

赤古里는 赤古里 3점, 小赤古里 5점, 袂赤古里 5점, 襖赤古里 17점, 回粧袂赤古里 2점, 長赤古里 1점으로 6종류 33점이다.

赤古里는 小斂과 大斂에 사용되었으며, 이 중 赤古里, 小赤古里, 長赤古里는 小斂에 사용되었다.

색상은 紫的 4점, 白 3점, 沉香 4점, 草綠 9점, 大紅 1점, 鴉青 5점, 甫羅 1점, 北京青 1점, 藍 3점, 冒 1점으로 10색상이 사용되었다.

옷감은 匹段, 花紋匹段, 吐紬, 紬, 花紗絹, 抗紗絹, 雲紋潞州紬, 紋匹段, 花紋綾, 潞州紬가 사용되었다.

小赤古里는 大斂의 內備에만 사용되었는데 색상은 草綠과 白色이다.

回粧袂赤古里는 大斂의 外備에 사용되었는데 沉香에는 藍色의 回粧을, 大紅에는 草綠의 回粧을 덧댄 것으로 추측된다.

外備衣襟저고리의 內拱은 모두 12~13尺의 白紬를 사용했고 襖赤古里的 綿花는 8兩을 사용했다.

赤古里 中 沉香 花紋匹段은 同色 潞州紬로, 袂赤古里的 紫的 抗紗絹은 同色 絹로, 襖赤古里 중 甫羅 紋匹段은 柔綠匹段, 鴉青花紋匹段은 同色 彭段으로, 北京青은 玄色廣的, 藍花紋綾은 同色 潞州紬, 藍綾은 同色 潞州紬, 鴉青匹段은 深草綠 匹段, 沉香紬는 同色 潞州紬로 代用한 기록이 있다.

• 赤衫

赤衫類에는 赤衫 2점, 赤的衫 12점, 單赤衫 17점으로 3종류 31점이 있다.

小斂과 大斂에 사용되었으며, 赤衫과 小赤衫은 小斂의 內비의대, 單赤衫은 大斂의 外비의대에 사용되었다.

색상은 紫的, 白, 苧布(표백하지 않은 色)色 13점, 黃 1점, 鴉青 5점, 藍 3점으로 6색상이다.

옷감은 羅, 苧布, 紗(雲紋, 花紋, 紗), 絹이 사용되었으나 紗는 絹로, 絹은 羅와 禾紗로 代用한 기록이 보인다.

赤衫은 羅와 苧布로 만들었고, 小赤衫은 苧布로 만들었다.

• 汗衫

汗衫類에는 汗衫 2점, 小汗衫 12점, 唐汗衫 1점, 袂唐汗衫 1점으로 4종류 16점이 있다.

襲과 大斂에 사용되었으나, 汗衫은 襲에, 小汗衫은 襲과 大斂, 唐汗衫과 袂唐汗衫은 大斂에 쓰였다.

색상은 白 15점, 草綠 1점, 大紅 1점으로 3종류이다.

옷감은 苧布, 紗, 金錦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옷음으로 보면 汗衫과 小汗衫은 白苧布를 썼고, 唐汗衫과 袂唐汗衫은 색상이 있는 紗와 金錦을 사용하여 속옷류와 袍類로써의 구별이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唐汗衫에는 雀(무늬)가 있다.

• 長古衣

襖長古衣로 大斂 內備衣襟이며 草綠吐紬를 사용하였고 雀(무늬)가 있다. 1점이다. 袍인지 上衣인지 확실치 않으나 일단 上衣類에 포함시킨다.

• 背巨里

小斂 內備衣襟로 花絲絹, 白紬 각각 1점이 있다. 나주정씨 출토품 가운데 비슷한 형태가 보이기 있다.³⁶⁾

36) 朴聖實·高富子, 高陽出土 羅州丁氏 出土遺物 고찰, 韓國服飾 제9호, 단국대 민속박물관, 1991, p. 56, 149

3) 下衣類

赤尔類 17점, 袴 10점, 末古 1점, 鳳池 1점 등이 있다.

• 치마(赤尔)

赤尔類의 종류에는 赤尔 2점, 單赤尔 27점, 袂赤尔 22점, 襦赤尔 11점, 納赤尔 1점, 上赤尔 6점, 赤赤尔 2점으로 7종류 71점이 있다.

襲, 小斂·大斂에 모두 사용된 赤尔는 袂赤尔와 上赤尔이다.

색상은 藍 30점, 大紅 5점, 夏玄紅 1점, 紅 1점, 草綠 9점, 軟草綠 1점, 深染草綠 1점, 黃 3점, 柳黃 1점, 鴉青 6점, 紫的 5점, 白 3점, 黑 3점, 沉香 1점, 冒 2점으로 15색상이다.

옷감은 匹段, 紬, 苧布, 漳州絹, 花紋綾, 雙絲綃, 雲紋紗, 屯絹, 紗絹, 花紋紗, 鄉織, 權通, 綃, 花紋丹, 花紋潞州紬, 漳州綃, 熟綃, 花紋匹段, 潞州紬, 絲綃, 廣紗段이 사용되었다.

赤尔의 內拱과 腰腰으로 비단류에는 白紬가 사용되었다.

기록의 순서로 보아 襲의 內備衣襟에는 藍鄉織 袂赤尔와 紫的 匹段 上赤尔(膝蘭)를 함께 입었고 小斂 內備衣襟에는 藍 匹段(鄉織)赤尔와 藍 熟綃 上赤尔 그리고 藍 匹段 上赤尔 1점이 있다.

大斂 內備衣襟에는 藍鄉織 上赤尔와 藍鄉織 襦赤尔, 紫的 廣紗 上赤尔와 藍 匹段 襦赤尔, 紫的紗 上赤尔와 藍鄉織 袂赤尔를 함께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대림 외비의대 중 藍花紋匹段 赤尔는 袂·襦·單의 3벌이 함께 묶여져 기록되어 있고, 藍漳州絹 赤尔와 黑屯絹 赤尔는 袂과 單의 2벌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토유물에서 보이는 한 허리에 치마 3벌을 같이 만든 옷이 아닌가 추측된다. 襦赤尔의 綿花 소요량은 1벌에 10兩씩이다.

赤赤尔라는 赤尔는 大斂 外備衣襟에 冒段으로 만든 것이 2벌 있다.

• 袴

單袴 5점, 袂袴 5점으로 2종류 10점이 있다.

單袴는 襲·大斂에 사용되었고, 袂袴는 襲·小斂·大斂에 사용되었다.

색상은 모두 白色이며 單袴·袂袴 모두 外備衣襟이어서 치수가 기록되어 있다.

옷감은 單袴는 모두 苧布이고, 袂袴는 紬와 花絲紬이다.

• 末古

大斂의 內備衣襟에 1벌이 있는데 白金線으로 만들었다.

• 鳳池

襲의 內備衣襟에 1벌 사용되었는데 白, 熟, 綃로 만들었다.

4) 其他類

襲의 內備衣襟에 사용된 부속물로서 涼耳掩 1벌, 大紅 匹段으로 된 侈 1쌍(신발, 궁중어), 白綃, 足巾 1쌍이 있다. 이외에 裏衣, 其奴, 單衣의 기록이 있으나 아직 구분이 확실치 않다.

• 裏衣

襲의 內備衣襟로 白 苧布 1점과 小斂 內備衣襟로 苧布 6점이 있다. 속옷 종류이다.

• 其奴

大斂의 內備衣襟로 大紅 金線 1점이 있다. 옷의 형태가 아닌 金線緞 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單衣

大斂의 內備衣襟로 柔綠 吐紬 1점이 있다.

VI. 兩儀軌와 昭顯世子·莊烈王后 嘉禮都監儀軌의 服飾比較

懿仁王后와 仁穆王后의 服飾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표 3>하고 나아가 同時代의 嘉禮都監儀軌와 비교하여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표 4>.

<丑 3>

懿仁王后 및 仁穆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의 服飾

區 分 種 類		의 인 왕 후 1600年							인 목 왕 후 1632年							총 계	
		襲		小斂		大斂		합 계	襲		小斂		大斂		합 계		
		內 用	外 備	內 用	外 備	內 用	外 備		內 備	外 備	內 備	外 備	內 備	外 備			
袍 類	的衣								1		2		1	2	4	4	
	的衣												2		2	2	
	露衣												1		1	1	
	長衫		1	1		1		3		1					1	4	
	長衣	長袂衣	1					37	38			1			1	2	40
		長襖衣 襦長衣 納長衣	1			1	1		3				1	8	14	23	26
道袍	道袍			1				1					2	22	24	26	
上衣類	添里					1		1								1	
	唐衣	長單唐衣												3		3	3
		袂長唐衣												3		3	3
	申衣	小申衣												5		5	5
		袂小申衣								1				4		5	5
		襦小申衣												9		9	9
		納小申衣												2		2	2
	肩尔只	唐申衣								1				4		5	5
		袂唐申衣												1		1	1
		肩尔只	2				2		4								4
	腋尔只	小肩尔只					2		2							2	2
袂肩尔只		1						1							1	1	
襦肩尔只				1		4		5							5	5	
赤古里	腋尔只										1		4		5	5	
	袂腋尔只												8		8	8	
	襦腋尔只												4		4	4	
	赤古里	2				2	24	26			2			1	3	29	
	小赤古里					3		5			5				5	10	
赤衫	袂赤古里					1		1					5		5	6	
	襦赤古里					3		3					17		17	20	
	粧赤古里						2	2								2	
	回粧袂赤古里													2	2	2	
赤衫	長赤古里										1				1	1	
	赤衫	1	2	13		1	17	18			2				2	20	
赤衫	小赤衫					2		18			2	1竹			12	30	
	單赤衫												17		17	17	

<표 3>

區 分 種 類			의 인 왕 후							인 목 왕 후							총 계	
			襲		小 斂		大 斂		합 계	襲		小 斂		大 斂		합 계		
			內 用	外 備	內 用	外 備	內 用	外 備		內 備	外 備	內 備	外 備	內 備	外 備			
上衣類	汗 衫	汗衫		2					2							2	4	
		長汗衫			1				1								1	1
小汗衫									1	2				1竹		13	13	
唐汗衫														1		1	1	
	背 巨 里	背巨里										2				2	2	
		襦長古衣												1		1	1	
其 他	裏衣	裏衣										6				6	6	
	襦之道	襦之道			1		1		2								2	
	其奴	大紅金線其奴												1		1	1	
	單衣	涼單衣												1		1	1	
			8	5	18	1	26	80	138	4	5	34	1	77	79	200	338	
下衣類	赤 尔	赤尔			2				43	45			1		0	1	2	47
		單赤尔			2	3	3			8			3			24	27	35
		袂赤尔	1	4	1	4	1			11	1	3	4	3	11	22	33	
		小赤尔			8					8								8
		小袂赤尔			1					1								1
		小襦赤尔				1				1								1
		襦赤尔					5			5				6	5	11	16	
		納赤尔												1		1	1	
		上赤尔									1		2	3		6	6	
		赤尔													2	2	2	
袴	單袴	袴					1		1								1	
		袴	3	2			1	3	9		2				3	5	14	
抹袴	末抹	袴	1	1			3	5			1		1		3	5	10	
		袴古池				1			1								1	
鳳池	鳳池												1			1	1	
			5	7	15	8	12	49	96	3	6	3	8	14	49	83	179	
합 계			13	12	33	9	38	129	234	7	11	37	9	91	129	283	517	

<丑 3>

其他類	冠	冠 頭巾 耳掩 汝火	1 3					1 3 1 1	1					1	3 2 1
	帶	帶 金道多益帶 都多益帶		1			1	1 1						1	1 1 1
	衾	衾 內衾 單衾 袂法司衾				1	1				1 1 1			1 1 1	1 1 1
	신류	足巾 侈							1쌍 1쌍					1쌍 1쌍	1쌍 1쌍
합계			4	1		4	9	4		3			7	16	

<丑 4>

殯殿都監儀軌 및 嘉禮都監儀軌의 服飾 比較

殯殿都監儀軌		嘉禮都監儀軌					
의인왕후(1600年)		인목왕후(1623年)		소현세자(1627年)		인조장렬후(1638年)	
		的衣	的衣 袂的衣	翟衣	袂大衫 團衫 袂襖 袂褙子	翟衣	大衫 背子 單衫
		露衣	露衣	露衣	袂露衣	露衣	金圓紋露衣
				中衫	中衫	中衫	中衫
長衫	長衫	長衫	長衫	長衫	胞背袂長衫	長衫	胸背袂長衫 袂長衫 單長衫 洗手長衫
長衣	長衣 長衣 長衣	長衣	長衣 長衣 長衣				
		唐衣	長單唐衣 袂長唐衣				
		串衣	小串衣 袂小串衣 襦小串衣 衲小串衣 唐串衣 袂唐串衣				
肩尔只	肩尔只 小肩尔只 袂肩尔只 襦肩尔只	腋尔只	腋尔只 袂腋尔只 襦腋尔只				

〈丑 4〉

赤古里	赤古里 小赤古里 袂赤古里 襦赤古里 回粧赤古里	赤古里	赤古里 小赤古里 袂赤古里 襦赤古里 回粧袂赤古里 長赤古里	赤古里	赤古里 短赤古里	赤古里	短赤古里 袂赤古里 襦赤古里
赤衫	汗衫 小赤衫	赤衫	赤衫 小赤衫 單赤衫				
汗衫	汗衫 長汗衫	汗衫	汗衫 小汗衫 唐汗衫 袂唐汗衫	汗衫	潤汗衫		
				衫兒	衫兒	衫兒	衫兒 闊衫兒

殯殿都監儀軌 및 嘉禮都監儀軌의 服飾 比較

		長古衣	襦長古衣				
		背巨里	背巨里				
		裏衣	裏衣	裏衣	裏衣	裏衣	單裏衣 袂裏衣
襦之道	襦之道						
道袍	道袍						
漆里	漆里						
				胡袖	胡袖	胡袖	襦胡袖
		其奴	大紅金線其奴				
		單衣	涼單衣				

殯殿都監儀軌 및 嘉禮都監儀軌의 服飾 比較

殯 殿 都 監 儀 軌				嘉 禮 都 監 儀 軌			
의인왕후(1600年)		인목왕후(1632年)		소현세자(1627年)		인조장렬후(1638年)	
赤 尔	赤 尔 單 赤 尔 袂 赤 尔 小 赤 尔 小 袂 赤 尔 襦 小 赤 尔	赤 尔	赤 尔 單 赤 尔 袂 赤 尔 襦 赤 尔 納 赤 尔 上 赤 尔 赤 赤 尔	赤 尔	赤 尔	赤 尔	袂 赤 尔
袴	袴 單 袴 袂 袴	袴	單 袴 袂 袴				
抹 袴	抹 袴 末 袴	末 古	末 古	裙	袂 裙 袂 裙	裙	裙(翟衣用) 勝蘭單襪裙 襪 襪 裙
		鳳 池	鳳 池				
冠	冠 頭 巾 耳 掩 汝 火	冠	耳 掩	冠	汝 火 裸 面 紗 首 笠 只 翟 紗 冠	冠	袂 汝 火 袂 面 紗 月 笠 只 首 紗 只
帶	帶 金道多益帶	帶	都多益帶				
衾	袂 衾	衾	內 衾 單 衾 袂 法 司 衾				
		신 류	足 巾 侈				

이상으로 살펴본 斂襲衣들을 王妃의 平生衣襟의 총집합인 셈이며 따라서 國婚時 장만되는 제한된 衣襟와는 달리 전반적인 服飾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써 이미 先行된 研究를 보충·수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각처에서 발굴되어 정리된 출토 복식들 중에는 衣名을 알 수 없는 형태의 복식이 포함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세한 기록들이 그러한 숙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本 儀軌에서 확인된 다음과 같은 기록들은 재고 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인 것이다

- ① 雀(孔雀)胸背가의衣·唐串衣·唐汗·長古衣 등에 부착되고 있는 점
- ② 袂·襦·衲의 長衣가 보이고 있는 점

- ③ 道袍와 添里가 王妃 斂衣에 포함된 점
- ④ 袞龍袍 絳紗袍 冕服 대응하는 王妃의 衣襟가 長衫(本朝命服)으로 통일되고 있는 점
소요량이 雲紋紗 23.5尺으로 통일되고 있는 점 (尙宮의 長衫과 동치수)
- ⑤ 唐衣·赤古里(小赤古里, 長赤古里, 回粧赤古里...)가 보이는 점
(先行된 연구는 赤古里→唐衣 短赤古里→回粧 赤古里로 보고 있음)
- ⑥ 串衣(小串衣, 唐串衣...)의 형태
- ⑦ 赤衫과 汗衫의 구분
- ⑧ 腋了只와 肩了只로命名된 점
- ⑨ 赤尔(單赤尔, 小赤尔, 納赤尔, 上赤尔)의 종류
- ⑩ 耳掩, 汝火 등 內人이나 尙宮의 頭飾이 포함되

고 있는 점

⑪ 衣色, 衣料名 등이 다양한 기록... 등등이다.

Ⅶ. 結 論

현재까지 출토된 出土服飾들은 우리의 服飾分野 研究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出土服飾들은 부족한 實物資料의 공간을 메꾸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삼 논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 보다 정확한 出土服飾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葬俗中 斂襲制度에 관해서 고찰해야 할 과제를 안고 문헌을 찾았으나 문헌마저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행히 王室의 斂襲制度를 알 수 있는 殯殿都監儀軌를 접하게 되었다. 本稿에서 다룬 양 의례는 예상외로 자세한 기록이 있어 우선 이를 고찰하게 되었다.

國朝五禮儀 凶禮와 國朝喪禮補編도 이를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었으며 歷代 殯殿都監儀軌는 바로 위의 2가지 문헌에 의해 實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國葬節次의 儀註는 襲衣 9칭, 小斂衣 19칭, 大斂衣 90칭으로 통일되고 있으나 실제로 斂襲儀를 담당하는 殯殿三房儀軌의 내용은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소용되었다. 대표적으로 襲衣는 內備 12칭, 外備 10칭, 小斂衣는 內備 42칭, 外備 9칭, 大斂衣는 內備 92칭, 外備 129칭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례도 전·후반기로 양분되고 있다. 補編이 편찬된 1758년을 기점으로 후반기 의례는 9칭, 19칭, 90칭으로 통일되고 있으며 衣名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양 의례는 초기에 속하는 것으로 수백벌의 상세한 기록을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면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국대 민속박물관 소장 羅州丁氏 出土遺物 중 저고리류 15점 가운데 7종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형태가 발견되므로써 본 의례와 비교·연구한다면 역시 중요한 연구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經國大典」, 一志社, 1982.

「國譯 世宗莊憲大王 實錄」

「國朝喪禮補編」, 英祖 28年(1752), 서울大 규장각 도서.

「國朝五禮儀」

단국대학교 민속박물관(編)(1982), 「제2회 壽衣特別展, 단국대학교 민속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도록」, 단국대학교 출판부.

단국대학교 민속박물관(編)(1991), 「韓國服飾」, 제9호, 단국대학교 출판부.

「端懿嬪 殯宮都監儀軌」, 肅宗 44年(1718), 서울大 규장각 도서.

「明聖王后 殯殿都監儀軌」, 肅宗 9年(1683), 서울大 규장각 도서.

「明成皇后 殯殿·魂殿都監儀軌」, 高宗 22年(1895), 서울大 규장각 도서.

朴炳善, 「朝鮮朝의 儀軌」, 19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학교 도서관(編)(1983), 「규장각 도서 한국본 종합목록; 史部」,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도서관(編)(1982), 「규장각 한국본 도서 해제 IV」, 서울대학교 출판부.

「宣懿王后 殯殿都監儀軌」, 英祖 6年(1730), 서울大 규장각 도서.

「宣祖實錄」, 宣祖 26年, 국사편찬위원회.

「昭顯世子 嘉禮都監儀軌」, 서울大 규장각 도서.

「純明妃 殯殿·魂殿都監儀軌」, 光武 8年(1904), 서울大 규장각 도서.

「純元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哲宗 11年(1860), 서울大 규장각 도서.

신구문화사(編), 「한국인명대사전」

「神貞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高宗 23年(1886), 서울大 규장각 도서.

유송옥(1986), 「朝鮮時代 儀軌圖의 服飾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未刊行).

이궁익(編)(1977), 「국역 연려실기술 III, IX」, 민족문화추진위원회.

「仁敬王后 殯殿都監儀軌」, 肅宗 6年(1680), 서울大 규장각 도서.

「仁穆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仁祖 10年(1632), 서울大 규장각 도서.

「仁宣后 殯殿·魂殿都監儀軌」, 顯宗 15年(1674), 서울大 규장각 도서.

「仁顯王后 殯殿都監儀軌」, 肅宗 27年(1718), 서울大 규장각 도서.

「仁祖大王 殯殿都監儀軌」, 서울大 규장각 도서.

「仁祖莊烈后 嘉禮都監儀軌」, 서울大 규장각 도서.

「懿仁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宣祖 33年(1600), 서울大 규장각 도서.

全州李氏大同宗約院(編)(1990), 「懿愍皇太子妃 葬儀錄」.

「貞聖王后 殯殿都監儀軌」, 英祖 33年(1757), 서울大 규장각 도서.

「貞純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純祖 5年(1805), 서울大 규장각 도서.

「哲仁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高宗 15年(187

8), 서울大 규장각 도서.

「獻敬惠嬪 殯宮都監儀軌」, 純祖 15年(1815), 서울大 규장각 도서.

「顯穆綏嬪 殯宮·魂宮都監儀軌」, 純祖 22年(1822), 서울大 규장각 도서.

「孝純賢嬪 殯宮·魂宮兩二房儀軌」, 英祖 27年(1751), 서울大 규장각 도서.

「孝懿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純祖 21年(1821), 서울大 규장각 도서.

「孝定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光武 7年(1903), 서울大 규장각 도서.

「孝顯王后 殯殿·魂殿都監儀軌」, 憲宗 9年(1843), 서울大 규장각 도서.